

문 1.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 ㉠ 우리는 널따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 ㉡ 밀가루 반죽을 홍두깨로 넓적하게 편다.
- ㉢ 손흥민 선수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실증을 느낀다.
- ㉣ 그 집 지붕에는 얇다란 함석판들이 이어져 있었다.
- ㉤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굵다란 눈물을 뚝뚝 흘렸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문 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불휘 기쁜 남근 바르매 아니 뭘씨, 꽃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쁜 므른 크므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용가 2장 >

물 깊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命하실씨 물 튼자히 건너시니이다
 城 높고 드리 업건마른 하늘히 도복실씨 물 튼자히 느리시니이다
 < 용가 34장 >

님그미 뵈커신마른 太子를 물 어드실씨 누른 남기 니려셔니이다
 나라히 오라건마른 天命이 다아갈씨 이른 남기 새 뉘 나니이다
 < 용가 84장 >

- ①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 ②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 ③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 ④ 종성독용팔자(終聲獨用八字)

문 3. 다음 중 줄여서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 ① 바뀌었다.
- ② 품중이어요.
- ③ 줄어들었습니다.
- ④ 다투었군요.

문 4.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김치 Kimchi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불국사 Bulkuksa 속리산 Songnisan 대관령 daegwalryeong

- ① 김치 Kimchi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설날 seollal
- ②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 ③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 ④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문 5.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는 무엇인가?

과연 노파는 한 푼이라도 더 돈으로 바꾸고 싶은 노파
 심에서였을 것이다. 먹지도 않고 그 곁에서 ()
 하는 나에게 하나쯤 먹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먹음
 직하거든 제발 좀 사달라고 얼굴은 울음 반 웃음 반이
 다.

- ① 小貪大失
- ② 寤寐不忘
- ③ 十匙一飯
- ④ 垂涎萬丈

문 6.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 ① 훈몽자회
- ② 한불자전(韓佛字典)
- ③ 말모이
- ④ 큰사전

문 7.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쓰인 것?

<보기>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을 그 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 ① 누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② 선생님은 제가 여쭙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 ③ 아버지께서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 ④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문 8. 다음 중 문장 배열이 올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가)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나)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겅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라) 비자반 일등급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둘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 ① 라 - 나 - 가 - 다
- ② 라 - 나 - 다 - 가
- ③ 나 - 라 - 가 - 나
- ④ 나 - 가 - 라 - 다

문 9.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 ① 과실을 극복하여 유연한 태도를 배우는 필요성.
- ② 각박한 현실에 맞서서 대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③ 대상은 신비로운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 10. 다음 중 띄어쓰기 잘못된 것은?

- ① 부자 간의 정을 나누다.
- ② 그는 대학 재학 중에 고등 고시에 합격하였다.
- ③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 ④ 물건을 보는 데만 세 시간이 걸렸다.

문 11. 다음 중 표준어와 비표준어 연결이 잘못된 것은?

- | | |
|---------|-------|
| 표준어 | 비표준어 |
| ① 총각무 | 알타리무 |
| ② 개다리밥상 | 개다리소반 |
| ③ 방고래 | 구들고래 |
| ④ 산누에 | 멧누에 |

문 1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할 때 검색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① 보내 주든지 가지고 가든지 네 생각대로 해라.
-> 생각대로
- ② 나는 라면 국물을 그릇째로 들고 후루룩거렸다.
-> 그릇째
- ③ 할머니는 손녀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 들리다
- ④ 어머니는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기를 신신당부했지만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 -> 신신당부하다

문 13. 다음 보기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당찮다
- ② 그렇잖다
- ③ 달갑잖다
- ④ 올곧잖다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는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이기 때문이다. '양자화(quantize)'라고 불리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음역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한 ㉠ 근삿값으로 바뀌는데, 그 순간 다른 음으로 변화된 저음이 화음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 버린다. 배음(倍音)과 화음의 바탕을 이루는 베이스음이 변동되는 순간,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음악의 구조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

(나)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 디지털화의 기본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음악 정보가 원본과 다른 근삿값으로 바뀌어 기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성적 시스템에서 89.4와 95.5는 0.1의 작은 차이를 보이는 점수이다. 그런데 만일 소수점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될까? 89.4점은 근삿값인 89점이 되고 89.5점은 근삿값인 90점이 된다. 작은 차이의 점수가 '수'와 '우'라는 현격한 차이의 점수로 바뀐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디지털 변환은 이처럼 매우 미세한 차이를 차원이 다른 결과로 바꿔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 디지털의 오류는 44.1kHz, 16비트 해상도의 '작은 그릇'인 CD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잡음 없는 깨끗한 소리를 전달한다는 장점과는 달리, 음악의 전체적인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CD의 편의성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음악성에는 불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CD의 사운드는 충분하지 못한 해상도의 디지털이 갖는 단점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해상도 낮은 사진에서 불분명한 화소가 뭉뚱그려져 보이는 '깍두기 현상'이 나타나듯,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들의 섬세한 사운드에 담긴 미묘한 변화와 표정, 다이내믹, 특징적인 공명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라)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의 서주부와 같이 더블베이스의 저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주 CD와 LP로 비교하여 들어 보면, 저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얼마나 빈약하게 느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정확한 저음을 바탕으로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클래식 음악을 CD로 듣고 있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느낌이 들곤 한다.

- 출처: 레코드의 비밀 -

문 14. ㉠과 같은 사이시옷 구성은 무엇인가?

- ① 시냇물
- ② 조갯살
- ③ 전셋집
- ④ 두렛일

문 15.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D는 고음역을 잘 표현한다.
- ② CD는 44.1kHz, 16비트 해상도라는 단점이 있다.
- ③ LP와는 다르게 CD에서 저음을 들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느낌을 준다.
- ④ 양자화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다.

문 16.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것?

- ① (가)와 (나)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② (나)와 (다)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다)와 (라)는 CD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가), (다), (라)에는 은유와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17. 띄어쓰기 문제 잘못된 것은?

- ① 그쪽으로 갈까요? 어젯밤에 갔던데요.
- ② 모르겠던데요.
- ③ 왔던데요.
- ④ 아프던데요.

문 18. 현대어로 번역이 잘못된 것은?

(가) 毗盧峯(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나)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느야 높듯던고
 (다) 넓거나 넓은 天下(천하) 엇씨햏야 적닷 말고
 (라) 오르디 못햏거니 내려가미 고이힐가

- ① 비로봉에 올라보니 그대는 누구이신가?
- ②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 ③ 넓거나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했는가?
- ④ 오르지 못했으니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문 19. 회의 의안 심의 과정 올바른 것?

- ①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찬반토론 - 표결
- ②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표결
- ③ 제출 - 찬반토론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표결
- ④ 제출 - 제안설명 - 상정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표결

문 20.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마치겠다.
- ② 자꾸 밤새지 마라, 몸 축날라.
- ③ 밤샘 보람이 있다.
- ④ 몇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문 21. 다음 중 두음법칙 구성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공+염불
- ② 신+년도
- ③ 강수+량
- ④ 비구+니

문 22.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빛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① 열무 삼십 단을 이고 ② 해는 시든 지 오래
- ③ 찬밥 ④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문 23. '배춧잎 같은 발소리'와 동일한 수사 기법은?

- ① 고요한 빛소리
- ② 내 유년의 율목
- ③ 해는 시든 지 오래
- ④ 찬밥처럼 방에 담겨

24. 다음 중 문장부호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③ 가운데점은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쓴다.
- ④ 문장 안에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 겹낫표를 쓴다.

25. 외래어 규정이 잘못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2020 대비 군무원 개강 !

국내 유일 군무원 면접관 출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군무원 면접 1차 전화 접수: 2019년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2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http://g.daejangbu.com/> 02-849-7746